## 제210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 일본군헌병대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강사 : 이승희(李升熙,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반연구원)

시간 : 2017. 05. 30. 화. 12:00 – 14:00

장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GL룸

2017년 5월 30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GL룸에서 제210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약 15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군헌병대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라는 주제로 이승희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반연구원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승희 연구원은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 후 일본 헌병에 관한 많은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승희 연구원은 본 세미나에서 일본헌병이 어떠한 제도이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강연하였다. 먼저 일본 헌병제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헌병은 1881년 프랑스의 헌병제도를 모델로 하여 창설될 당시부터 고유의 군사경찰권과 함께 민간에 대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경찰권을 지니고 있었다. 군사경찰만 수행하는 미국 등의 헌병제도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일본 헌병은 일본 국내에서는 대규모 민중 소요나 폭동 등 비상상태에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제한적인 보통경찰권만 행사하였다. 그러나 대만, 한국, 만주 등 식민지 및 점령지에서는 일상적으로 실시하였다. 헌병은 또한 정보기관(스파이)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승희 연구원은 일본 헌병은 재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였다. 일본 현병은 일본국내에서 홍수, 지진, 화재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지역에 파견되어 구호, 치안유지, 정보수집 등의 행정경찰 업무를 수행하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라는 미증유의 재해가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시행된 행정계엄 하에서 헌병대는 소방, 구호, 경비, 유언비어의 조사 및 단속, 범죄 검거 등의 보통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세력에 대한 경계, 탄압과 같은 고등경찰 업무 등 다방면에 걸친 경찰업무를 수행하여, 헌병 스스로 '국가비상경찰기관'임을 자부할 정도로 '활약'하였다.

당시 헌병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먼저 경시청의 경찰은 재해로 인한 혼란과 빈약한 무장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치안을 유지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질서회복과 유지를 위해 파견된 대규모 병력의 군대에게는 경찰권이 없었다. 경찰과 군대의 중간에 위치한 헌병의 역할은 계엄 하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조직과 병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헌병대를 증설하고 타병과로부터 보조헌병을 대폭 소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병력부족 문제로 인해 '조선인 폭동' 등의 유언비어를 빌미로 자경단, 경찰, 군대의 조선인

학살이 자행되는 가운데 헌병의 활동은 이를 현장에서 경계, 단속하기보다 상황 종료 후의 조사 및 그 처리를 하는데 집중되었다. 또한 군대와 경찰과 같이 조선인학살 행위가 공문서를 통해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자경단의 조선인학살을 방조하는 등 헌병도 직간접적으로 조선인학살에 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희 연구원은 관동대지진 당시 헌병이 수행한 다양한 임무 중에서도 관동대지진 당시 계엄선포의 진정한 목적은 재해구조보다도 '진재(震災)보다 무서운 마르크스주의'의 탄압이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던 사회주의세력에 대한 탄압이 헌병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대지진 직후 이루어진 나라시노(習志野) 수용소의 조선인 사회주의자에 대한 조사 및 단속 활동도 그 일환이었다. 그는 자료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토론>

질문 : 계엄사령관이라는 것은 헌병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계엄사령관은 헌병은 아니죠?

답 : 예. 헌병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육군참사관 대장이었다가, 정식 사단장을 맞지 않고 예비역에 비슷한 형태로 약간 외부로 나가있는 한직에 있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을 맞게 되었습니다.

질문 : 기본적으로는 군한테 치안유지권을 주는 것이죠?

답 : 그렇죠. 군사령관에게 그 지역을 질서를 회복하고 치안을 유지시켜서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한 위한 경비를 맡기는 것입니다.

질문 : 뒷부분에 관동대지진 자경단에 대해서는 자료나 실체가 그 지역에 있는 조직인가요?

답 : 각 지역에 있는 조직에 있습니다. 주로 관련을 짓게 되는 것은 군 출신이었던 사람입니다. 재야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이 앞장선 민간조직입니다.

질문 : 사회주의자 색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본은 사회주의 탄압이 시작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인가요? 1923년도면 빠르지 않습니까?

답 : 사회주의는 굉장히 일찍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1910년대에도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질문 : 사진 보여주셨을 때, 나카노 학교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악명이 높은 육군 첩보 학교입니다. 이것과 헌병은 완전히 다른 조직인가요?

답 : 그 이후에 이름이 비슷해서 혼란이 많았지만, 이후 졸업생들 증언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두 조직간에 교류도 없었습니다.

질문 : 일본 헌병은 그 수가 적었다고 하는데, 조선인도 많이 고용을 했는지, 조선인에게는 제약

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일본 본국에는 헌병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의외로 조선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헌병 숫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조선 내 파견된 순수한 일본 헌병 수가 이천이 넘었습니다. 조선은 이토 히로부미가 개입해서 헌병보조원제도를 창조합니다. 조선인들을 대거 헌병으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헌병이 아니라 헌병보조원이라고 해서, 한국정부가 돈을 내게 시켜서 헌병을 보조시키는 업무를 위해서 대량으로 채용했습니다. 6천명 이상이 지원하여, 순식간에 헌병 병력이 8천명이 넘어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였습니다. 제약이 없었던 이유는 의병을 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병출신, 경찰출신을 전부 흡수하는 형식으로 군사 스킬을 가진 사람들을 군사로 뽑고, 의병에 대한 정보도 얻는 일석이조이었습니다. 원래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가 했던 방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조선 치안을 헌병한테 맡기기 위해서 대량으로 채용한 겁니다. 나중에 보통경찰제도가 되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경찰로 전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경찰이 됩니다.

질문 : 헌병보조원까지이죠?

헌병보조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계급장은 없고, 호봉만 있습니다. 대신 조선인 헌병대가 존재했습니다. 일본에 있던 조선들이 헌병에 지원해서 헌병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통설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누가 죽였는지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헌병이 방조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공권력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 : 조선인 유언비어가 경시청에서부터 나옵니다. 신문기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순식간에 꼬리를 물면서 일본 민중들의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뻔하게 나온 통설입니다만 식민지배에 대한 스스로 켕기는 것이 있었는데, "저 조선인들은 복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위험한 조선인을 다 죽여야 한다."라는 두려움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 마침 이 시기에 누가 불을 붙여주니까 확 타올라서 "그럼 이 조선인들 죽이자"라고 된 것입니다. 자경단이 앞장섰고 경찰이 도왔습니다. 군대도 "일단 죽이고 보자"라는 식이었습니다. 경비병이지만 자경단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군대와 경찰은 분명히 참여하였고, 이들이 더 조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파악이 된 이후에는 헌병을 통해 진압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헌병도 학살에 참여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봤는데 '관헌'이었습니다. '관헌'하고 '헌병'은 다른 것입니다. '관헌'에 '헌'자가 들어가니까 헌병으로 파악한 잘못된 기사입니다. 경찰과 군대는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죽인 숫자 중에 30프로 가까이는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물로 군수대부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시청은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질문 : 한국에서 관동대지진에 대해서 이미지가 옅습니다. 1945년 9월 1일에 조선인들이 이 사건을 기념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46년 47년 계속 이어집니다. 주도했던 사람들이 조련입니다. 좌익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모임자체가 좌익색깔이 띠어서 한국에서 기피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문제제기 했던 것은 동일신문입니다. 임정기에 한국정치에서 독립신문 계열

이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이것을 주요로 내걸지 못하는 정치분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병에도 조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회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병・기병・공병・포병은 직접적으로 학살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술하실 정도의 자료가 있나요?

답 : 예. 있습니다.

질문 :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인 학살을 했다고 한 증거는 아직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렇게 부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적으로 일본군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학살의 주체로서 있다고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 이미 일본에서 자료집 안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측에서 부정하는 것은 사건이지,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던가 숫자가 적다는 식일 겁니다. 일본정부도 불리한 정보는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한 줄 두 줄이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아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증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정치싸움인가요? 자료싸움인가요?

답 : 이미 사법성에서 다 적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헌병 자체가 만든 헌병사령부라든지 동경헌병대 등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대신 회고를 모아서 만든 헌병정사라는 일본 헌우회가 만든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후에도 있었고, 헌병사령관 출신자들이 대거 나옵니다. 거기에 회고 같은 것들이 많은데, 보면 자기들은 안 그랬다고 합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부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 중앙일보에서 헌병이 했다는 기사가 몇 년도인가요? 그 이전에는 헌병 이야기는 안 했나요?

답 : 2013년입니다. 헌병의 '헌'자도 관원 헌 자였음.

질문 : 헌병, 군대, 경찰이 복장도 비슷했는데 구별할 수 있었습니까?

답 : 오로지 완장 하나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헌병이 아닌데 헌병으로 오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헌병은 하얀색 완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해를 많이 받는 직종이긴 합니다.

질문 : 헌병이라고 하는 조직이 군조직 내에서 위상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군대 내에서 골치 아픈 일을 담당했습니까? 군부 내에서 일종의 엘리트 코스입니까?

답 : 전후의 이미지는 가혹한 공습체제 하에서 일반 민중을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파견된 군대에는 항상 헌병에 의해 뒤통수를 당합니다. 헌병하면 다들 얼굴이 싹 바뀝니다. 두려운 존재이고, 헌병들이 목에 힘을 엄청 주고 다녔습니다. 천황의 권위를 대신하는 의식이 있어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전쟁의 상징이 되어버려서 다들 싫어하는 입장이었고, 악의 상징으로 묘사 됩니다. 헌병 스스로는 황권을 대신 행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미움을 많이 받아서 결국 출세가 잘 안 됩니다. 진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승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집단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군대의 개, 도죠의 개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질문 : 오오스키 사카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바는 자유민권사상가라는 수준입니다. 헌병대가 자국 사상가를 죽인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사상적으로 탄압받은 것은 오오스키 살해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계엄령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계엄령 하가 아니었으면 아무리 헌병이라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를 단속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죄도 없는데 아마카스가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결국 계엄사령관이 바뀝니다. 이것은 일본사회에서 큰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군부의 입김에 의해 아마카스는 처벌받지 않고, 군복만 벗고 민간 회사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상가를 함부로 잡을 수는 없음. 조선인 사상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못 잡았습니다. 무엇인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오스키 사건이 큰 반향이 되어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